

#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because, since, as 이유절 사용에 관한 연구

오치성·박태숙\*

(상명대)

Oh, Chisung & Park, Tae-Sook. (2016). Korean learners' causal use of *because*, *since*, and *as*-claus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4), 303-319.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learners' positioning of *because*-, *since*-, and *as*-clauses in relation to main clauses in causal complex sentences. For this purpose, 156 low-intermediate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English sentences using causal *because*, *since*, and *as* as class assignments. *Because*-, *since*-, and *as*-clauses in their English compositions were analyzed in terms of ordering of causal adverbial clauses and main clauses. The results showed that *because*-clauses were used most frequently as independent clauses, and that *since*-clauses and *as*-clauses were preposed more often than *because*-clauses. Particularly, students used independent *since*- and *as*-clauses, though they were used less frequently than independent *because*-clau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learners tend to recognize not only *because* but also *since* and *as* as *waynyahomyen* in Korean. The transfer of L1, argued in Park & Oh's (2016) study on *because*-clauses, is shown to have an effect on the use of ungrammatical independent *since*- and *as*-clauses. As for preposed *since*- and *as*-clauses, it is indicated that *since* and *as* are considered *-ki ttaymwuney* more often than *because*. This factor might lead Korean learners to use *since*- and *as*-clauses more frequently before the main clause, in comparison with *because*-clauses.

**주제어(Key Words):** because절(*because*-clauses), since절(*since*-clauses), as절(*as*-clauses), 독립절(independent clauses), 주절(main clauses)

---

\* 제 1저자: 오치성, 교신저자: 박태숙

## 1. 서론

부사절(adverbial clauses)과 주절(main clauses)의 순서는 화용론과 제2언어습득 분야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Diessel(2001)에 따르면 영어와 같은 VO 언어에서는 종속접속사가 부사절의 앞에 위치하며 이러한 언어에서는 부사절이 주절 앞과 뒤에 모두 위치한다. 그러나 한국어와 같은 OV 언어에서는 종속접속사가 부사절의 뒤에 위치하면 이러한 언어에서는 대부분 부사절이 주절 앞에 선행한다. 한국어의 경우는 모든 부사절이 주절 앞에 선행하므로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가 연구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부사절이 주절 앞과 뒤에 모두 위치하므로, 종속접속사에 따라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Altenberg 1984, Quirk et al. 1985, Ford & Thompson 1986, Ramsay 1987, Ford 1993, Biber et al. 1999, Diessel 1996,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영어의 부사절을 의미와 기능에 따라 조건절, 시간절, 이유절로 나누어 이들의 문장 내 위치를 분석하였고, 모든 연구들에서 조건절은 시간절보다 더 많이 문장 앞에 위치하고, 시간절은 이유절보다 더 자주 문장 앞에 위치한다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사절 중에서 특히 이유절은 다른 부사절보다 문장 뒤에 위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Diessel(2005)은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는 처리의 힘(processing forces)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사절이 문장 앞에 나오면 청자는 절이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므로 처리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하지만 문장 뒤에 나오는 경우는 주절을 처리한 뒤에 종속접속사가 나올 때 그 때 즉각적으로 부사절을 처리하면 되므로 문장을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 원어민과 한국 영어 학습자의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 Kweon(2008)을 보면, 한국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는 부사절을 항상 주절 앞에 사용하므로, 이러한 모국어 양상이 전이되어 원어민보다 부사절을 훨씬 더 주절 앞에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유절의 경우에는 원어민과 비교하면 더 자주 앞에 사용하지만, 문장 앞과 뒤를 위치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앞보다는 더 많이 뒤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Kweon은 한국 학습자들은 원어민과 달리 이유절을 독립절로 사용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Kweon의 연구에서 이유절은 because절만을 분석하였으므로, since 이유절과 as 이유절은 연구되지 않아, 이유절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태숙·오치성(2016)도 because절을 분석하여 because절의 문장 내 위치에 대한 모국어 전이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Kweon(2008)에서 주장한 because절 사용에 대한 모국어 전이를 더 심화하여 살펴보고, 연구 결과 그들은 한국의 초중급 영어학습자들에게 나타난 because절 사용의 모국어 전이는 문장 앞 사용보다는 독립절이나 문장 뒤 사용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학습자들은 because를 한국어의 ‘-기 때문에’라기 보다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여 because절을 문장 앞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장 많

은 because절을 독립절로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문장 뒤에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도 이유절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ecause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 since절과 as절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이유절로 사용되는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가장 큰 관심은 박태숙·오치성(2016)에서 주장하는 바 because절의 문장 내 위치에 영향을 끼치는 모국어 전이가 since절과 as절에도 나타나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즉,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사인 since와 as도 because처럼 ‘왜냐하면’으로 자주 인식이 되어 문장 뒤에 많이 위치하는지, 혹은 ‘-기 때문에’로도 인식이 되어 문장 앞에 위치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since절과 as절도 because절처럼 독립절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에 대한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들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러한 이유절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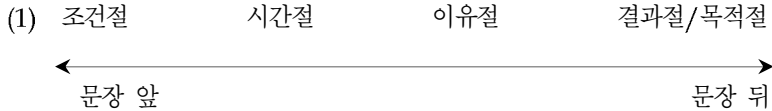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이 영어의 이유절인 because절, since절, as절을 문장 내에서 주절과 비교해 어떤 위치에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로, 여기에서는 영어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제시하면서 특히 이유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Diessel(2001)은 주절과 부사절의 문장 내 순서를 40개의 언어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40개의 언어들은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양상을 보였으며,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는 종속접속사의 부사절 내 위치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OV 언어에서는 종속접속사가 부사절의 뒤에 위치하였는데, 이러한 언어에서는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VO 언어와 극소수의 OV 언어와 OV/VO 언어에서는 종속접속사가 부사절의 앞에 위치였는데, 이러한 언어에서는 부사절이 문장 앞과 뒤에 모두 나타났다.

영어와 같은 후자의 언어들에 대하여 Diessel(2001)은 부사절의 의미 유형에 따라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조건절로는 if, 시간절로는 when, after, before, until, 이유절로는 because, 결과절로는 so that, 목적절로는 in order to의 종속접속사로 표시되는 부사절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사절이 주절 앞과 뒤에 모두 위치하는 언어에서는 부사절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부사절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조건절은 시간절보다 더 자주 주절을 선행하고, 시간절은 이유절과, 결과절, 목적절보다 더 자주 문장 앞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유절은 문장 뒤에 위치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결과절과 목적절은

거의 항상 주절 뒤에 위치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Diessel(2001)은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 계급(ordering hierarchy)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계급 상 더 높은 부사절은 더 낮은 부사절보다 더 자주 문장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Diessel(2001)의 영어 부사절의 위치 분포 결과 중에서 이유절의 문장 앞과 뒤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가 다룬 이유절은 because-절만을 다루었으며, 이 because절에 해당하는 이유절은 총 541개의 because절 중에서 30개(5.5%)가 문장 앞에 위치하였으며, 511개(94.5%)는 문장 뒤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영어의 이유절로 대표되는 because절은 대부분 문장 뒤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essel(2005)은 영어의 주절과 부사절의 위치 분포에 대하여 구어체 영어와 문어체 영어 코퍼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조건절로 *if*, 이유절로 *because*, *since*, *as*, 시간절로 *when*, *while*, *after*, *before*, *once*, *until*, *since*, *as*, *as soon as*, *as long as*와 같은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을 분석하였다. Diessel(2001)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는 결과절과 목적절은 분석하지 않았고, 조건절은 *if*로 하나의 같은 접속사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유절은 *because*에 *since*와 *as*를 더하여 세 개의 이유 부사절을 분석하였다. 시간절의 접속사는 4개에서 10개로 훨씬 더 많아졌다. 그는 대화(*conversation*), 소설(*fiction*), 과학 논문(*scientific writing*)의 코퍼스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 대화에서는 67.9%의 이유절이 문장 뒤에 위치하였고, 소설에서는 62.4%, 과학 논문에선 56.3%가 문장 뒤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세 코퍼스에서 모두 문장 뒤 부사절이 문장 앞 부사절보다 더 빈도수가 높았다. 특히 과학 논문에서는 43.7%의 부사절이 주절을 선행하여 다른 코퍼스에서보다 앞 부사절의 비율이 컸지만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자료는 506개의 조건절, 1032개의 시간절, 496개의 이유절이 있었고, 부사절의 의미에 따른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는 Diessel(2001)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모든 코퍼스 유형에서 모두 조건절은 시간절보다 더 자주 주절을 선행하고, 시간절은 이유절보다 더 자주 주절 앞에 위치하였다. Diessel은 또한 부사절과 주절의 길이를 분석하여, 앞 부사절이 뒤 부사절보다 길이가 더 짧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뒤 부사절과 앞 부사절의 길이 또한 차이를 보이는 데, 평균적으로 뒤 부사절은 앞 부사절보다 약 2.5 단어가 더 길었다. 따라서 그는 길이 또는 무게(*weight*)가 부사절의 위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Diessel(2005)은 이러한 자료 분석에 대하여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에 작용하는 세 가지 경쟁하는 동기로, 처리의 힘(processing forces), 담화 화용적 힘(descourse pragmatic forces), 의미적 힘(semantic forces)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동기들이 경쟁하여 이기는 힘이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문장 뒤에 위치하는 이유절은 처리의 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유절보다 문장 앞에 많이 위치하는 조건절이나 시간절은 도상성(iconicity)과 같은 의미적 힘이나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와 같은 담화 화용적 힘이 처리의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여 문장 앞에 위치한다고 설명하였다.

Diessel(2005) 연구에서 이유절의 결과를 자세히 보면, 대화에서는 496개의 이유절 중에서 1.1%만이 문장 앞에 위치하였고, 소설에서는 10.2%가 앞에, 과학 논문에서는 27.1%가 문장 앞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이유절은 특히 대화에서는 거의 대부분 뒤에 쓰이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학 논문에서는 이유절이 다른 유형의 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자료에서 대부분의 이유절은 because절로 소설과 특히 대화에서 이유절은 거의 항상 because절이었다. 이에 비해 since절과 as절은 훨씬 적게 쓰였고, 과학 논문이 상당한 비율의 since절과 as절을 포함했다.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 결과를 보면, 전체 자료에서 평균 6.7%의 because-절이 문장 앞에 나타났고, since절은 39.2%, as절은 48.8%가 문장 앞에 위치했다. 따라서 주절을 선행하는 이유절은 전형적으로 since절이나 as절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Diessel(2005)은 since절과 as절은 because절과 다소 다른 기능을 한다고 제시했다. 즉, because절은 주절 뒤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since절과 as절은 알려진 이유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Dancygier & Sweetser 2000).

이유절의 전반적인 문장 뒤 사용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했듯이 Diessel(2005)은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에 관련하여 처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이 처리의 원리는 Hawkins의 처리 이론(Hawkins 1990, 1992, 1994, 1998, 2000)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Diessel은 복합문(complex sentences)에서 부사절이 주절을 따른다면 인식의 영역(recognition domain)이 훨씬 더 짧아져서 청자가 처리하기 더 쉽고, 따라서 부사절의 문장 뒤 위치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부사절이 주절 앞에 나온다면 청자는 문장에 절이 두 개있다고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주절이 나올 때까지 이를 기억하고 유념하게 되므로 처리의 부담이 더 크다. 그러나 부사절이 주절을 따르게 되면 문장이 두 개의 절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뒤에 부사절을 표시하는 중속접속사가 나오면 그 때 바로 복합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때는 이미 주절이 처리된 후이므로 청자는 문장을 처리하는 데에 훨씬 덜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의 힘은 앞 부사절이 뒤 부사절보다 더 짧은 경향을 잘 설명한다고 Diessel(2005)은 주장한다. 앞 부사절이 더 짧을수록 인식 영역이 더 짧아져서 복합문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뒤 부사절의 길이는 인식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뒤

부사절을 짧게 표현할 특별한 처리의 압력이 없어서 이로 인해 뒤 부사절은 앞 부사절보다 더 길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영어의 부사절과 주절의 문장 내 위치 분포에 대한 연구로 Park(2011)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ark은 until, till, before, as, after, once, since, when이 이끄는 시간절, because, since, as가 이끄는 이유절, if와 unless가 이끄는 조건절, although, though가 이끄는 양보절의 문장 내 위치를 분석하였다. 문어체 코퍼스인 LOB과 구어체 코퍼스인 BNC에서 위 15개의 부사절을 분석하여, 각 부사절의 빈도와 문장 내 위치에 대하여 문어체 영어와 구어체 영어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Park(2011)의 연구 결과 중에서 이유절의 결과를 보면, 문어체인 LOB에서 총 960개의 이유절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604개는 because절, 198개는 since절, 158개는 as절이었다. 각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를 보면, because절은 15.6%(94개)가 문장 앞에 위치하였고, since절은 36.4%(72개), as절은 42.4%(67개)가 문장 앞에 위치하였다. 구어체인 BNC에서는 총 3,145개의 이유절이 사용되었고, 이 중 2964개는 because절, 73개는 since절, 108개는 as절이었다. 문장 내 위치에 관하여는 because절 중에서 13.5%(400개)가 문장 앞에, 그리고 since절은 37.0%(27개), as절은 18.5%(20개)가 문장 앞에 위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유절은 문어체보다 구어체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특히 코퍼스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구어체에서 because절이 문어체에서보다 대략 4배 이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because절은 구어체에서 매우 선호되어 사용된다. 반면에 since절과 as절을 보면 반대로 구어체 보다 문어체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에 관하여는 because절은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모두 문장 뒤에 위치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since절은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모두 because절과 비교했을 때 문장 앞에 더 많이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as절은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문어체에서는 since절보다 더 자주 문장 앞에 쓰였지만, 구어체에서는 since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로 문장 앞에 쓰이고 있었다. Park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because절은 문장 뒤에 위치하고, since절과 as절은 문장 뒤에 더 많이 사용되지만 because절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문장 앞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유절에 대한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Diessel(2005)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지금까지는 세계의 언어들과 영어에서의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에 관한 연구로 연구의 주요 내용과 특히 영어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원어민 코퍼스를 분석한 것으로 영어 원어민들의 영어 부사절과 주절의 문장 내 위치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므로, 다음으로는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를 분석한 연구로 Kweon(2008)을 살펴보고자 한다.

Kweon(2008)은 영어 원어민 코퍼스와 한국의 영어학습자 코퍼스를 분석하여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에 대한 결과를 원어민의 사용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건절로 if절을, 시간절로는 when절을, 이유절로는 because절만을 분석하여 3개의 종속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만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원어민 코퍼스와 학습자 코퍼스에서 모두 조건절은 시간절보다 더 자주 주절을 선행하였고, 시간절은 이유절보다 더 자주 주절을 선행하여, Diessel(2005)을 포함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Kweon의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은 한국 학습자들은 모국어 전이로 인하여 영어 원어민 화자보다 부사절을 문장 앞에 사용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점이다. 한국어에서는 부사절이 항상 주절을 선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국어의 양상이 영어에 전이되어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은 영어부사절을 원어민보다 훨씬 더 문장 앞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weon(2008)의 원어민 코퍼스 중 Brown 코퍼스의 결과를 보면 if 조건절은 53%, when 시간절은 32%, because 이유절은 5.5%가 문장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자 코퍼스인 NICKLE에서는 if 조건절의 81.1%, when 시간절의 58.4%, because 이유절의 34.9%가 문장 앞에 위치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영어학습자들은 조건절과 시간절의 경우는 문장 뒤보다 확실히 앞에 많이 사용하지만, 이유절의 경우는, 원어민과 비교했을 때는 더 많이 문장 앞에 사용하지만, because절을 문장 앞보다는 뒤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because절 중에서 19.7%가 독립절로 사용이 되어 학생들은 비문법적인 because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if절과 when절은 모국어 전이로 인하여 대부분 문장 앞에 사용이 되고, 독립절로 쓰인 경우가 없는데 반하여, because절의 이러한 특이한 양상은 because절의 문장 내 위치와 관련하여 모국어 전이 현상이 다른 부사절과는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because절에 관한 모국어 전이 현상에 대하여 더 깊은 관찰이 필요했다.

이에 박태숙·오치성(2016)은 한국 학습자들의 because사용에 관한 모국어 전이 효과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초중급 수준의 한국 대학생들의 영작문에서 because의 문장 내 위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작문에 나타난 166개의 because절 중에서 2.4%(4개)만이 문장 앞에 위치하였고, 46.4%(77개)는 문장 뒤에 위치하였다. 나머지 51.2%(85개)는 독립절로 사용이 되어 because절을 문장으로서 비문법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Kweon의 연구와 다소 다른 것으로 이는 그들의 연구대상자들의 영어 능숙도가 초중급에 해당하여 모국어 전이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그들은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은 영어의 because를 한국어의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여 because절의 반 이상을 독립절로 사용하고, because절을 문장 앞보다는 문장 뒤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because를 '-기 때문에'로 인식했다면 모국어 전이로 인하여 이 부사절을 문장 앞에 상당히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초중급 학습자들은 because절을 문장 앞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문장 뒤나 독립절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because절의 모국어 전이는 한국어의 부사절과 주절의 순서가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학생들이 because를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여 모국어 전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의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에 관한 연구는 because절의 연구만 있었다. 그러나 원어민의 이유절에 대한 분석은 because절 뿐만 아니라 since절과 as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because절 사용을 포함하여 이유절로 사용된 since절과 as절의 문장 내 위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ecause를 ‘왜냐하면’으로 인식한다면,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사인 since와 as도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여 문장 뒤와 독립절로 많이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에서 이유절로 사용되는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에 대하여 한국 영어학습자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지 원어민의 사용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모국어 전이 효과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영어학습자들의 능숙도를 초중급으로 제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초중급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 분포는 어떠한가?
- 2) 초중급 한국 영어학습자들은 because 독립절 사용과 같은 양상으로 since 독립절과 as 독립절을 사용하는가?.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15학년도에 충남 소재의 4년제 대학에서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영어읽기와 영작을 주로 하는 40명 정원의 영어 수업 6개 분반의 수강생들이다. 학생들은 연구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영작 과제를 부여받았다. 또한 영어능숙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기 중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익을 보고 성적표를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6개 분반 총 220명 중에서 영작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제외되었고, 토익 600점을 초과한 학생들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모국어 전이 현상이 주로 능숙도가 낮은 학생에게서 잘 나타나므로 모국어 전이로 인한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에 대한 한국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56명의 학생이 본 연구의 참여자이다. 그들 중 119명은 토익 성적이 200점에서 400점까지이고, 36명은 410점에서 600점까지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토익 성적에 기반하여 영어 능숙도가 초중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2. 연구 도구 및 절차

연구 도구는 학생들에게 영작 과제로 주어졌다. 학생들의 영작 과제에서 이유절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공포에 대한 글을 읽은 후 학생 자신의 공포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면서 영작을 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업 일정 중 5주에 'What are your top five fears?'라는 제목의 기사를 수업시간에 읽었다. 이 글은 영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의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보여주면서 다양한 공포증의 이름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은 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영작 과제를 부여받았다.

List three things you are afraid of. Why do you fear them?

(because, since, as와 같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각각 적어도 한번 이상 사용하여 영어로 쓰세요.)

이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읽은 기사의 내용을 참조로 하여 자신이 실제로 무서워하는 세 가지 공포에 대하여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since, as 접속사를 사용하여 영작하였다. 그리고 다음 수업시간에 영작 과제를 연구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렇듯 because, since, as의 사용을 권장하는 영작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에서 나타난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빈도수는 자연 자료(natural data)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본 연구의 관심은 since절과 as절도 because절과 문장 내 위치에 관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므로, 자연 자료에서 보다 더 높은 비율로 since절과 as절의 자료를 모아 이를 because절의 사용과 비교하였다.

학생들의 영작물을 과제로 받은 후 연구자는 그들의 영작문에 사용된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를 분석하였다. 이 이유절들의 문장 내 위치는 박태숙·오치성(2016)에서와 같이 문장 앞, 문장 뒤, 독립절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빈도를 세었고, 그리고 각 절의 전체 개수에서 각 유형의 개수를 고려하여 비율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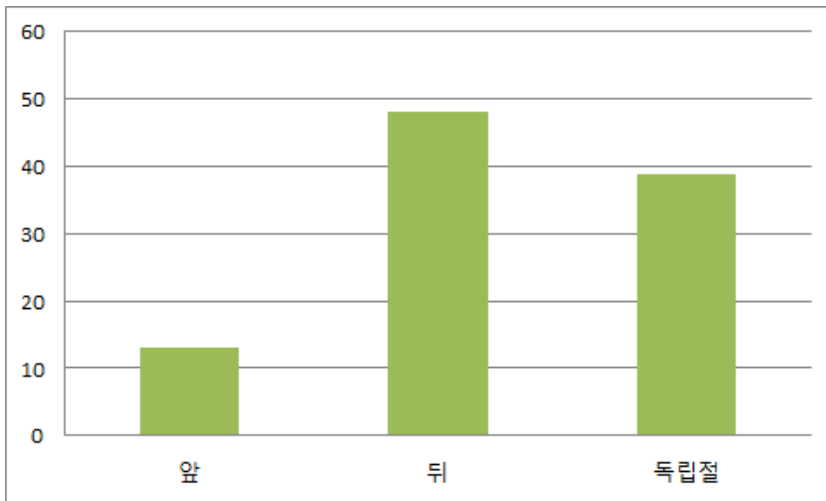
## 4. 결과 및 논의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초중급 영어학습자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은 각 이유절과 모든 이유절의 위치 유형의 빈도수와 비율을 보여주며, 그림 1은 because절, since절, as절을 포함하는 모든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 비율을 도표로 보여준다.

표 1.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의 빈도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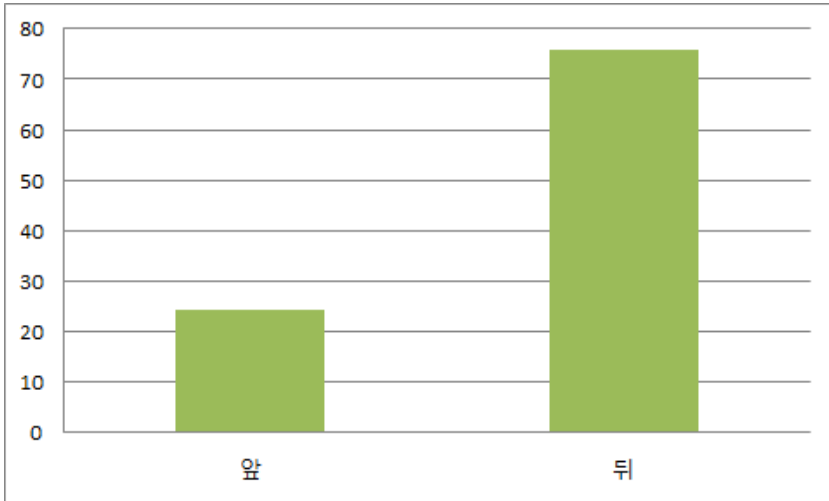
|          | 앞          | 뒤           | 독립절         | 합계         |
|----------|------------|-------------|-------------|------------|
| because절 | 4 (2.4%)   | 77 (46.4%)  | 85 (51.2%)  | 166 (100%) |
| since절   | 21 (21.0%) | 48 (48.0%)  | 31 (31.0%)  | 100 (100%) |
| as절      | 22 (23.1%) | 49 (51.6%)  | 24 (25.3%)  | 95 (100%)  |
| 합계       | 47 (13.0%) | 174 (48.2%) | 140 (38.9%) | 361 (100%) |

그림 1. 이유절(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 비율



위의 표와 그림에서 먼저 전체 이유절의 문장 앞과 뒤, 및 독립절의 비율을 보면 총 361개의 이유절 중에서 13.0%(47개)가 문장 앞에 위치하였고, 48.2%(174개)는 문장 뒤에 위치하였고, 38.9%(140개)는 독립절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because절, since절, as절을 모두 합하여 이유절 전체를 보았을 때, 이유절은 문장 뒤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독립절이 사용되었고, 문장 앞에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이유절 사용을 원어민의 사용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2에 Park(2011)의 문어체 코퍼스 LOB에서 because절, since절, as절을 포함하는 전체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 비율을 도표로 제시하였다.

그림 2. 이유절(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의 비율(LOB in Park (2011))



위의 그림을 보면 LOB에서는 독립절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이유절은 24.3%가 문장 앞에 사용되었고, 75.5%가 문장 뒤에 사용되었다. 이 원어민의 이유절 사용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초중급 영어학습자들은 상당한 비율로 이유절을 독립절로 사용하고, 이유절을 문장 앞보다는 뒤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은 각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에 대하여 명백히 비교하기 위하여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앞, 문장 뒤, 독립절의 사용 비율을 도표로 보여준다.

그림 3.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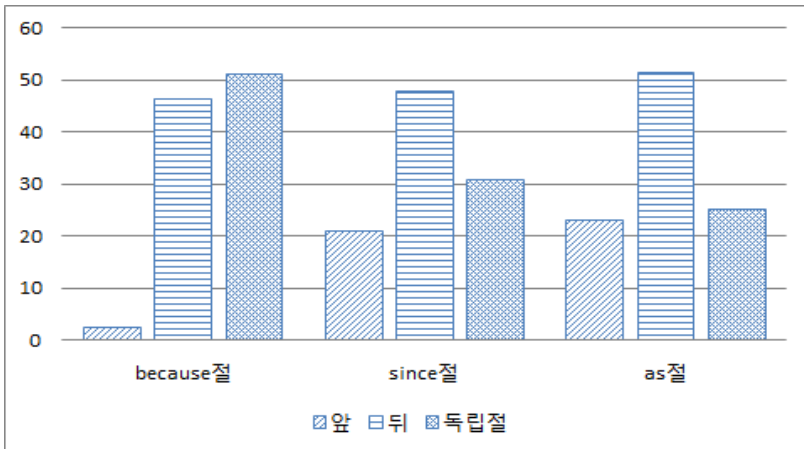


표 1과 그림 3을 보면 because절은 2.4%가 문장 앞에 위치한 반면, since절은 21.0%, as절은 23.1%가 문장 앞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since절과 as절은 because절보다 훨씬 더 문장 앞에 위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독립절은 because절이 51.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since절과 as절도 독립절로 사용된 결과를 보여준다. since절은 31.0%, as절은 25.3%가 독립절로 사용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 학습자의 결과를 원어민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4에 Park(2011)의 LOB에서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그림 4.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문장 내 위치의 비율 (LOB in Park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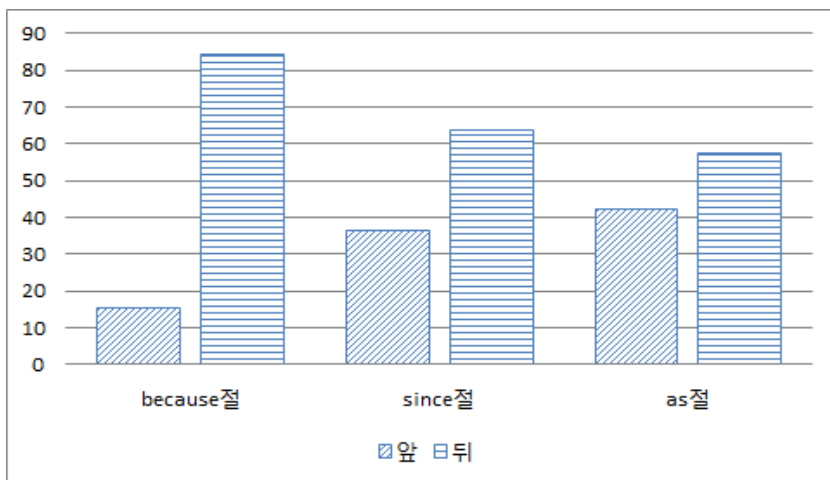


그림 4를 보면 원어민은 문어체에서 독립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because절은 가장 두드러지게 문장 뒤에 많이 사용되며, since절과 as절은 문장 뒤에 더 많이 사용이 되지만 because절과 비교했을 때 because절보다 훨씬 더 문장 앞에 많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어민의 이유절 사용과 비교했을 때, 한국 영어학습자들은 because 독립절의 사용뿐만 아니라, since절과 as절도 독립절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since절과 as절은 because절과 차이를 보였다. because절은 독립절로 가장 많이 쓰이며, 그 다음으로 문장 뒤에 쓰였다. 하지만 since절과 as절은 문장 뒤에 가장 많이 쓰였고, 그 다음으로 독립절로 사용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한국의 초중급 영어학습자들은 because 뿐만 아니라 이유절을 이끄는 since와 as도 ‘왜냐하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태숙·오치성(2016)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 ‘왜냐하면’은 독립절로 사용이 되면서 앞 문장의 이유를 제시할 때 사용되는 부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국어 전이가 since절과 as절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since 독립절과 as 독립절 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since절과

as절은 because절보다 문장 앞에 훨씬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since와 as는 because와 달리 간혹 '-기 때문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since절과 as절은 한국어의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를 적용하여 because절 보다 더 많이 문장 앞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학생들의 영작 자료에서 나타난 독립절의 예문은 학생들이 because 뿐만 아니라 이유의 since와 as도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여 독립절로 사용한 것을 보여준다.

(2) I am afraid of many things. Among them, I want to introduce three things. First, I am afraid of mice (This name is 'Musophobia'). **Because** mouse's sound is very terrible. ... Second, I am afraid of blood (This name is 'hemophobia'). **Since** I hate flu shot. ... Third, I am afraid of dogs (This name is 'cynophobia'). **As** dogs that don't have leaders are scaring me. So shen I go to park, I look around the park. (Because dogs run to me).

(3) There are three things that I fee fear. First I'm afraid of bungee jumping. **Because** I have a acrophobia, so I hate high places. Second I'm afraid of insects. Insects are scary. **Since** they are likely to attack me. Last I'm afraid of water. **As** I've ever fallen into water and almost died.

학생들이 because 뿐만 아니라 since와 as를 '왜냐하면'으로 인식한 것의 더 명백한 증거는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First, I have glossophobia. **Because** when I start presentation, all people's concentration makes me nervous.

(5) I fear when my mom angry, especially I taught a lesson to my mother. **Since** I was a mischievous boy when I was a kid.

(6) I am afraid of insect. **As** when I touch insect it feels creepy and when I see insect crawling down floor I get in to bad mood.

위의 예문에서는 학생들이 because, since, as 뒤에 when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영어에서는 비문법적이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할 때 -하기 때문이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구조의 문장을 쓴 것으로 보인다.

Because 독립절의 사용 오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이 된 바다. 오순영(2009)는 한국 학습자들의 because 독립절 사용에 대하여 구어체 전이와 모국어 전이를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으며, Kweon(2008)은 모국어 전이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태숙·오치성(2016)은 한국 학습자들이 because 독립절을 과다 사용하는 것은 구어체 전이가 아니라 because를 ‘왜냐하면’으로 인식한 모국어 전이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since 독립절과 as 독립절을 원어민들과 달리 상당 부분 사용한 결과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더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since절과 as절을 독립절로 사용하는 것은 구어체의 전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어체에서 because는 간혹 독립절로 사용이 되지만, since와 as는 독립절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because절, since절, as절의 독립절 사용은 구어체 전이의 효과가 아니라 모국어 전이 효과로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since절과 as절의 문장 앞 사용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이 두 접속사는 because보다는 ‘-기 때문에’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초중급 수준의 영어학습자들이므로 이들이 영어 자료를 통하여 since절과 as절이 because절보다 문장 앞에 더 많이 쓰이는 것을 인식하여 이들이 문장 앞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들은 since 이유절과 as 이유절의 충분한 예를 영어 자료를 통하여 보았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 연구의 초중급 학습자들이 since절과 as절을 because절보다 문장 앞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들 접속사를 because 보다 더 많이 ‘-기 때문에’로 인식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초중급 영어학습자들이 영어 이유절로 쓰이는 because절, since절, as절을 문장 내 위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 공포에 대하여 이 세 가지의 이유절을 사용하면서 영작을 하였고, 그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이유절을 문장 내 위치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은 because절을 가장 많이 문장 뒤에 사용하였고, since절과 as절도 문장 앞보다는 뒤에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because절에 비하여 문장 앞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박태숙·오치성(2016)에서 지적한 because 독립절의 사용과 같이 학생들은 since 이유절과 as 이유절도 상당히 독립절로 사용하였다. because 독립절보다는 비율이 낮았지만 since절과 as절도 독립절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이유절의 독립절 사용은 구어체 전이라기보다 모국어 전이 효과로 적절히 설명되었다. because 독립절 사용에 영향을 끼친 모국어 전이 현

상이 since절과 as절의 독립절 사용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다. 즉,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은 because를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지만, since와 as도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여 비문법적인 since 독립절과 as 독립절을 사용하는 것이다.

since절과 as절은 because절과 다소 다른 문장 내 위치 비율을 보였다. 즉, because절은 독립절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문장 뒤에 사용되는 것에 반해, since절과 as절은 문장 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독립절로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because절에 비해 문장 앞에 나오는 빈도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since와 as를 학생들이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지만 because 보다는 더 이들을 ‘-기 때문에’로 인식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Because는 학생들이 대부분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지만, since와 as는 ‘왜냐하면’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because의 경우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since와 as를 ‘-기 때문에’로 더 많이 인식하여 since절과 as절은 because절보다 문장 앞에 더 자주 위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because절, since절, as절과 같은 이유절의 문장 내 위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특히 이들을 독립절로 사용하는 오류에 대한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because 독립절은 영어 구어체에서는 사용이 되지만, 구어체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since 독립절과 as 독립절의 사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절의 독립절 사용을 금하고 이유절을 주절과 함께 주절 앞이나 뒤에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원어민의 이유절 사용을 적용하도록, because절은 주절의 진술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이유로 제시하도록 하여 주절 뒤에 다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since절과 as절은 알려진 정보를 이유로 제시하므로 because절 보다 더 자주 문장 앞에 사용된다는 것을 교육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명시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because절, since절, as절을 이유절로서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태숙, 오치성. (2016).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because 사용에 관한 모국어 전이 효과. *언어학 연구*, 39, 121-139.
- Altenberg, B. (1984). Causal linking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Studia Linguistica*, 38(1), 20-69.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Diessel, H. (1996). Processing factors of pre- and postposed adverbial clauses.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22, 71-82.

- Diessel, H. (2001). The ordering distribution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A typological study. *Language*, 77(2), 433-455.
- Diessel, H. (2005). Competing motivations for the ordering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Linguistics*, 43(2), 449-470.
- Dancygier B. & Sweetser. E. (2000). Constructions with if, since and because: causality, epistemic stance, and clause order. In Elizabeth Couper-Kuhlen & Bernd Kortmann (eds.), *Cause, Condition, Concession, 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pp. 111-142).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 Ford, C. E. (1993). *Grammar in interaction. Adverbial clauses i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d, C. E., & Thompson, S. A. (1986). Conditionals in discourse: a text-based study from English. In E. C. Traugott, A. ter Meulen, J. S. Reilly, and C. A. Ferguson (eds.), *On conditionals* (pp. 353-3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wkins, J. A. (1990). A parsing theory of word order universals. *Linguistic Inquiry*, 21, 223-261.
- Hawkins, J. A. (1992). Syntactic weight and information status in word order variation. *Linguistische Berichte* (special issue 4), 196-219.
- Hawkins, J. A. (1994). *A performance theory of order and constitu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wkins, J. A. (1998). Some issues in a performance theory of word order. In Anna Siewierska (ed.), *Constituent Order in the Languages of Europe* (pp. 729-780).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 Hawkins, J. A. (2000). The relative order of prepositional phrases in English: going beyond manner-place-tim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1, 231-266.
- Kweon, S. O. (2008).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ordering of main and adverbial clauses in Korean learners of English.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4(1), 159-176.
- Oh, S. Y. (2009). Functions of because in native English and Korean learner corpora.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5(3), 443-470.
- Park, T. S. (2011). A corpus-based analysis of clause ordering in English complex sentences.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3(3), 185-208.



Quirk, Randolph,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 (1985).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Ramsay, V. (1987).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preposed and postposed “if” and “when” clauses in written discourse, In Tomlin, R.(ed.),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pp.383-408) Amsterdam: Benjamins.

#### 오치성

3106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 (041) 550-5141

이메일: ohchs@smu.ac.kr

#### 박태숙

3106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전화: (041) 550-5376

이메일: tspark@smu.ac.kr

Received on September 29,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22, 2016

Accepted on December 30, 2016